

원로목사 제도, 한국교회 전통인가 폐단인가

김문훈 목사 '욕설 파문' 박영선 목사 '개척지원금 논란' 제기 논쟁 확산

부교역자 대상 욕설 논란으로 사의를 밝힌 김문훈 목사와, 개척지원금 논란 속 원로목사에서 물러난 박영선 목사의 사례를 계기로 한국교회의 '원로목사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최근 교계에서는 원로목사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지적과 함께, 제도의 존속 및 개선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잇단 논란... "원로 영향력 어디까지인가"

부산 포도원교회 담임이던 김문훈 목사가 부교역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결국 그는 담임목사직과 예정 고신총회 부총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목사는 약 27년간 교회를 이끌며 교단 내 유력 인사로 평가됐으나, 사건 이

후 교회 내 위계적 구조와 권위주의 문화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교계 일각에서는 그가 향후 '원로목사'로 추대될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며, 원로목사 제도의 의미와 자격 문제까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서울 남포교회회를 개척해 40여 년간 목회한 박영선 목사는 최근 원로목사직에서 사임했다. 박 목사는 이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자신의 아들과 관련, 그가 교회 측에 수십억 원대 개척지원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겪었다.

박 목사는 이에 대해 단순히 아들만이 아니라 자신도 함께 떠날 생각으로, 그럴 경우 부동산 가격 등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교회 내외에서는 은퇴 목사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명예직' 취치... 그러나 현실은 영향력 유지

원로목사 제도는 일반적으로 한 교회에서 장기간(통상 20년 이상) 목회한 담임목사에게 은퇴 후 명예직을 부여하는 제도다. 설교나 자문 등 제한적 역할을 통해 교회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원로목사가 여전히 교회 운영이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임 목회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목회자가 은퇴 이후에도 교회 방향이나 재정 문제에 관여하는 경우, "원로는 비차리비행정 직분"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폐지 주장 "비성경적이고 권력 구조 고착화"

비판 측은 원로목사 제도가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구조 문제를 강화한다고 지

적한다. 이들은 △담임목사 중심의 권력 구조 고착 △은퇴 후에도 영향력 지속 △세습 및 변칙적 자산 이전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는다.

김문훈 목사 사건에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수직적 교회 구조"가 반복되는 문제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원로목사 제도가 이러한 구조를 유지·강화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원로목사 제도 자체가 비성경적이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서창원 박사(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는 원로목사 제도가 성경적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 내 권력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원로목사 제도는 은퇴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구조로 변질되기 쉽다"며 "교회의 건강한 세대교체와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거



김문훈 목사(왼쪽)와 박영선 목사 ©기독일보 DB

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존치 주장 "목회 유산 계승교회 안정에 필요"

반면 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들은 원로목사가 교회의 역사와 신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상징적 존재이며, 급격한 리더십 교체 과정에서 교회의 혼란을 줄이는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본다.

또 은퇴 목회자의 사역 경험과 영적 권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는다. 특히 대형교회나 장기 목회가 이뤄진 교회일수록 원로목사의 존재가 공동체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제도 개선이나, 폐지나... 선택의 기로
교계 관계자들은 단순히 존폐를 둘러싼 이분법을 넘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원로목사의 권한 명확화 △재정 및 인사 개입 제한 △후임 목회자와의 역할 분리 △교단 차원의 관리 기준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잇단 논란 속에서 한국교회의 원로목사 제도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손질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교단과 교회, 그리고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교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김진영 기자

"서울과 국가 미래 위해 기도"... 제4회 서울특별시 조찬기도회 열린다

정·재계 및 교계 지도자 한자리 모인 가운데
3월 26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서울의 미래와 국가의 안정을 위한 기도회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서교총)와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는 오는 3월 26일 오전 6시 30분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제4회 서울특별시 조찬기도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준비위원들은 17일 서울 강남의 한 장소에서 준비기도회를 갖고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도에 나섰다.

이날 준비기도회에는 정광택 장로(태원영화사, 은누리교회), 두상달 장로(칠성산업사기독교실업인회), 정성길 장로(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선화목자교회), 황학수 장로(전 국회의원), 주광남 장로(금강철강, 사랑의교회), 박원영 목사(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며 정치와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기도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상달 장로는 "한국(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가 바로 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택 장로는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었다"며 "이번 조찬기도회가 그 기도의 전통을 이어가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돕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길 장로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기도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성숙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번 기도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교를 전한 박원영 목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본문으로 자유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 목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오는 3월 26일 열리는 제4회 서울특별시 조찬기도회를 앞두고 준비기도회에 참석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말했다. 이어 "자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찬기도회 당일이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인 만큼 참석자들이 은혜를 받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직과 공적 책임감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열리는 조찬기도회는 대한

민국의 미래와 서울의 발전을 위해 정·재계와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요 순서는 개회사에 두상달 장로, 대표기도에 배종락 장로(총현교회), 설교에 김진홍 목사(동두천두레마을), 축도에 김자연 목사, 그리고 김순미 장로(예장 통합 전 부총회장)가 서울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조찬기도회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도의 전통을 이어가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리와 美 대통령 면담, 정부 외교 노력의 결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김민석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면담 성사 과정과 관련, 이영훈 담임목사의 역할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것에 대해 17일 입장을 밝혔다.

교회 측은 백악관 신앙 관련 인사들과 오랜 기간 교류해 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만남이 특정 인물의 공로로만 비춰지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는 한국 정부가 한미 관계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회는 자신들의 역할을 "민간 차원의 신앙 네트워크를 통해 일부 기여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면담 성사 전반을 주도한 것처럼 해석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이어 "그동안 국적이나 정치적 입장을 넘어 한미동맹의 가치와 공공선을 위해 기도해 왔다"며 "종교적 유대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연결 고리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석 총리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이영훈 목사가 풀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자문과의 연결을 도운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회 측은 이를 단일 요인으로 해석하기보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형구 기자

세계 교회 향한 이란 성도들의 기도 요청은 >> 7면

미국-이란 전쟁의 진짜 배경은 무엇인가? >> 12면

히즈쇼의 장년 소그룹 플랫폼 '히즈라이프' >> 24면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에타 통과(50분 예상)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